

## 헌혈명예장 -김민섭-

김민섭 유틈요양병원장은 지난해 12월 헌혈명예장을 받았다.

헌혈명예장이란 헌혈 100회를 채운 사람에게 한국적십자사가 주는 헌혈 유공장으로, 경주 지역 현직 의사로는 김 원장이 처음이다.

“환자에게 주시를 놓으면서 누군가를 많이 치료해야 할텐데... 나도 한번 치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꼴로 매년 열 번 정도 헌혈을 했던 것 같습니다.”

21년간 꾸준히 헌혈을 하게 된 계기를 김 원장은 ‘바늘에 치료보는 아픔’을 말한다.

의료인이니까 환자가 고통스러워 해도 침습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. 환자를 더 잘 이해하려면 같이 겪어보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.

그가 처음 헌혈은 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이다. 그 후 대구가톨릭대학 가톨릭의대 본과 3학년 때 PK 실습을 돌면서 환자들을 대면하면서 “내가 나중에 의사 되겠구나”란 생각이 들어 헌혈을 시작하게 됐다.

그래서 지금까지 21년간 바늘에 치료되는 횟수는 100번, 총 4만 5000cc의 피를 뽑았다.

횟수가 늘수록 상을 주니 100번을 꼭 채워보겠다는 목표가 생겼고, 그 목표는 지난해 말 이뤘다. 김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도 헌혈을 ‘전파 중’이다.

8년째 강의를 나가는 서바벌대학교와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매년 헌혈을 권유하는 과제를 낸다.

“학생들 반응이 팬찮아요. 헌혈 과정을 비포후로 제출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는 강의평가를 받고 있어요. 얼마 전에는 포항헌혈원에서 간호학과 체자도 우연히 만났어요. 제 수업을 듣고



▲100번째 헌혈 중인 김민섭 유틈요양병원장.

그게 동기가 돼 헌혈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합니다.”

김 원장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간 4~5번은 헌혈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한다.

“너무 많이 해도 건강을 쟁기는 게 어렵잖아요. 헌혈할 때는 수술이나 내시경도 못 받고 약을 먹을 수도 없으니까요. 헌혈에 의료진이 앞장서면 좋을 것 같아요.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.”

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경북지역에 헌혈원이 있는 곳은 포항, 안동, 구미뿐인 점을 들었다. 경주에 거주하는 김 원장은 늘 대구 아니면 포항에서 헌혈을 해왔기 때문이다.

“경주에 헌혈원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는데 매번 거절당했어요. 경주에는 헌혈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이죠.”

너무 경제논리 같아서 안타깝다는 김 원장은 더 많은 헌혈원이 생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.